

癸未 通信使行 記錄의 장르 選擇

-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

李 東 燦*

차 례

- | | |
|--------------------------------|----------------------|
| I. 들머리 | IV. 표현 매체의 선택과 구성 방식 |
| II. 텍스트의 비교로 본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 | V. 장르 선택과 기대 효과의 확충 |
| III. 작가의 세계관적 기반 | VI. 남은 문제 |

I. 들머리

임진왜란 이후의 日本 通信使行은 12차례에 이른다. 英祖 39년(1763)의 癸未 通信使行은 그 11번째 사절로, 江戶까지 간 것으로서는 마지막 사행이었다.¹⁾ 이 使行은 이전의 어떤 통신사행보다 문화적 교류의 측면에서 평

* 부산대학교 강사

1) 德川家治의 承襲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癸未 通信使行은 17세기 초 일본과 체결된 조약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진 朝·日간의 사실상 마지막 通信使로의 의미를 갖는다. 이후 정식 통신사가 일본에 간 것으로 純祖 11년(1811) 金履喬를 正使로 한 辛未 通信使行이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경제적 문제로 그 규모가 훨씬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토에서 떨어진 對馬島에서 易地通信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가반을 만찬 것이었으며, 사행 후 남긴 見聞錄을 보더라도 그 양적·질적인 면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²⁾ 본고는 이들 중에서 일기 형식의 문학적 관습을 계승한 趙曦의 <海槎日記>와 國文歌辭인 金仁謙의 <日東壯遊歌>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해사일기>는 조엄이 英祖 39년(1763) 8월 3일부터 이듬해인 7월 8일 慶熙宮에서 復命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일기체 한문기록'으로서, 成大中的 序文-日記-酬唱錄-書契 및 禮單-與彼人往復文字-狀啓 및 筵話-祭文-曉諭員役文 및 禁·約條-日供-使行名單 및 路程記-日本通信使行次諸般軍令 등의 체제로 구성된 종합 보고서적 旅行記이다. 그런가 하면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는 재미 통신사의 座目과 사행 중의 여러 체험을 다채롭게 일기로 엮은 장편의 '일기체 국문가사'로서 개인적 경험의 슬회 기록적 성격을 띠고 있다.³⁾

<해사일기>에 대해서는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의 對日認識과 朝·日 관계를 중심으로 이를 使行文學 연구의 부분적 자료로 다루고 있으며,⁴⁾ <일동장유가>에 대해서는 사행의 노정·목적·배경·전문내용 등을 통한 작가의식과 개성, 일본의 풍속과 문물제도 및 환경, 통신사들의 대일관을 살피는 것이 대부분이다.⁵⁾ 또한,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의 비교 연

2) 癸未 通信使行 후 남긴 구체적 성과물은 공식 보고서로서의 謄錄은 물론 개인적 見聞錄으로도 趙曦(正使)의 <海槎日記>, 南玉(製述官)의 <日觀記>, 成大中(書記)의 <槎上記> <日本錄>, 元重舉(書記)의 <乘槎錄> <和國志>, 金仁謙(書記)의 <日東壯遊歌>, 閔惠洙(名武軍官)의 <槎上錄>, 吳大齡(譯官)의 <東使日記>, 作者未詳의 <癸未隨槎錄> 등을 들 수 있다.

3) <海槎日記>는 1975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국역해행총재』VII을, <日東壯遊歌>는 1984년 교문사에서 간행한 심재완 교주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 인용문에서 <해사일기>는 낱짜만을, <일동장유가>는 그 면수만을 밝힐 것임.

4) 김의환, 「조엄이 본 18세기 후반기 일본사회와 조일관계」,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 한국학논총』(동국대출판부, 1985); 이해순,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의 일본 인식」, 『학산조중업박사화갑기념논총 동방고전문학연구』(태학사, 1990); 임태문, 「재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비평》1994년 가을호; 한태문, 「조선 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5); 김성진, 「조선 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 연구」, 《도남학보》제15집(도남학회, 1996) 등 참조.

5) 장덕순, 『한국문학사』(동화문화사, 1978), 290~306쪽;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구도 진행되었으나,⁶⁾ 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작가나 작품의 내용을 대비하는 등 현상적 특징 추론 중심의 언급에 그쳤다.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는 동일한 사행 체험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되, 개인적 인식과 관심영역에 따라 '한문기록'과 '국문가사'라는 서로 다른 표현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는 서로 떼어서 연구하기 보다는 상호 관련성 위에서 파악할 때, 그 개별적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자료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는 텍스트의 내용이고, 둘째는 작가의 세계관적 기반이며, 셋째로는 건문 자료의 수용과 제시방식 등의 비교를 통한 장르 선택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이다.

II. 텍스트의 비교로 본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는 사행 체험의 觀察的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事實性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나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

구』(일지사, 1982), 301~337쪽; 심재완, 「일동장유가 해제」, 『한고전문학대계』10(교문사, 1984); 박노춘, 「김인결의 일동장유가」, 『한국문학잡고』(시인사, 1987); 심금현, 「일동장유가소고」, 《향란어문》 제17집(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1988); 고순희, 「18세기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 《한남어문학》 제17·18집(한남대 국어국문학회, 1992); 소재영, 「18세기의 일본체험」, 『충격과 조화』(국학자료원, 1992); 박희병, 「조선후기 가사의 일본체험, 일동장유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김국소, 「일동장유가연구」(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76); 강남수, 「일동장유가의 작가 및 배경연구」(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76); 이성후, 「일동장유가와 일본유람가의 비교연구」(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1)와 「일동장유가연구」(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및 「일동장유가의 이본연구」, 《논문집》 제12집(금오공대, 1991); 홍유표,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관」(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2); 서정규, 「사행가사연구」(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6); 김복순, 「일동장유가연구」(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2) 등 참조.

6) 김성대, 「일동장유가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77); 이성후, 「조엄과 김인결의 대일관 연구」, 《논문집》 제7집(금오공대, 1986); 이동찬, 「18세기 대일 사행 체험의 문화적 충격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15집(한국문학회, 1994) 등 참조.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상당 부분 언급이 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용을 비교함에 있어 작자의 임무나 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표현 중점 및 태도 등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1. 조엄은 임무수행의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행동 반경에 머물렀던 반면, 김인겸은 관료·선비·장사꾼·기생 등 다양한 인물들과 어울렸기에 그는 市井의 곳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다채롭고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해사일기>에서는 正使로서의 조엄이 國書를 받들어 전달할뿐 아니라 사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휘 통솔하는 공적인 업무 수행 모습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對馬島에서 壹岐島를 가던 중 풍랑을 만나 一騎船의 船木이 부러지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國書를 품고 天命을 기다리다가 하면, 겁에 질려 우는 배안의 使者들을 위로하는 태연한 모습에서 그의 공식적 지휘 통솔자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국서는 곧 우리 君父의 姓諱가 써어진 문자로 이미 내게 부탁하였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내 몸에서 떠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곧 국서를 내어 속옷 안에 갇어지고 붉은 띠로 매고 나서 天命을 기다렸다. 大邱通引 白允隆이 나에게 울며 고하기를, "원컨대, 사또의 적삼을 물에 던져서 액이 물러나기를 비소서" 하므로 내가 웃으며 답하기를, "사생이 어찌 여기에 매였겠는가?"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곁에 있던 使者들도 많이 울므로, 내가 웃으며, "울지 말라. 운다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였다(11월13일).

이와는 달리 보조 요원인 三房書記 김인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우월감 내지는 자부심으로 부산을 떠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二十三日 食前부터 穢念이 無數히 와
 筆談이 難堪하고 酬唱도 不樂하다
 病들어 어려우나 나라에서 보낸 뜻이
 이놈들을 制御하여 빛 있게 하심이라
 病이 비록 重환진들 어이 아니 지어 주리
 …生 힘을 다 들어서 風雨처럼 揮灑하니
 겨우 다 次韻하면 품속에서 다시 내어
 여러 놈이 함께 주면 턱에 닿게 쌓이도다

또 지어 내어주면 또 것처럼 내어놓네
老病한 이내 筋力 漸盡할까 싶으도다(179쪽)

이처럼 각자의 임무에 따른 태도와 세계 인식 방법 등에서의 차이를 전 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I-2. 다음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두 작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세 사신이 船所로 가서 각기 탈 배에 올라가 그 제작한 배 모양을 살펴보니, 자못 견고하게 되어 戰船에 비교하면 조금 큰데, 上裝의 길이가 19 발 반이고, 위 허리의 너비가 6발 2자이며, 위에 廳房 14칸을 설치하였다. 방의 위에 또 柁樓가 있는데, 붉게 단청을 하였으며 누 위에 扉幕을 설치하고 군막 위에 포장을 쳤다(8월22일).

대개 여리는 집을 잇대고 서봉 대마루를 연달아서 끊어진 데가 없고, 井자를 그어 뿔을 나누어 경계를 문란시키지 않았으니, 자연 城郭의 형상과 같았다. 집들이 웅장하고 석회를 바른 담이 둘러졌으며, 길을 끼고 있는 長廊은 벽돌로 쌓고 회를 발았는데, 모두 붉은 칠을 한 문에 잘 지은 집들이었다. 들으니, 여염집이 아니고 모두 관백의 官府 및 宗室·宰相의 집이라 (2월27일).

(나) 統營과 左水營서 배가 왔다 하는구나
크기도 그지없고 높기도 壯할시고
열 두 발 쌍돛대는 前後로 세워 있고
열 세間 널 놓은 房 左右로 만들었다
그 아래 집을 짓고 그 위는 樓이로다
여섯 隻 지은 物力 十萬兩이 들었다네(39쪽)

...

三絃과 軍樂 치며 三重城 내달으니
긴 行廊과 粉牆이며 朱漆한 높은 門을
金으로 새겼으며 구리로 꾸민 집이
左右에 벌였거늘 通事더러 물어 보니
執政과 太守들의 집이라 하는구나(221쪽)

위 인용문에서 앞부분은 釜山에서 渡海할 때 사신 일행이 타고갈 6척의 배의 규모를 묘사한 대목이고 뒷부분은 日本 도시의 번성함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에서 보듯이 조엄은 마치 대상을 눈 앞에 그려내듯 객관적인 태도에서 寫實적으로 자세히 묘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는 事實의 기록에

더욱 충실하고자한 조엄의 관찰력과 묘사력의 결과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김인점은 (나)에서처럼 그때 그때 대상을 보고 느낀 자기의 감정을 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의 빼어난, 도시경제의 번성함,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및 풍속에 대해서는 歎賞의 말이나 느낌을 주로 피력하거나, 주관적·회고적 정감을 강하게 반영하는 등 개인적 관점에서 卽物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3. 동일 사건이나 대상이 작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으로써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달리 드러나게 된다. <해사일기>는 예악·문물제도 등 사색적 견문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동장유가>에서는 풍속·사물 등의 인상적 견문에 서술이 집중되고 있다.

(가) 일본의 학술은 긴긴 밤이라 일러야 가하며, 일본의 문장은 소경이라 해도 가하겠으나...대개 長崎島에 배가 통하자 중국의 문적이 많이 흘러들어왔는데 계중에 뜻이 있는 자는 차차 문장에 나가게 되어 무진년에 와서는 글을 지어 주고받음이 자못 성했다 하였다. 이들이 이 뒤로 과연 문장으로 인하여 도를 배워서 차차 학문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비록 섬 오랑캐이긴 하지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니, 오랑캐라 하여 끝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 다만 천 년 동안 더러움에 물든 풍속만은 큰 역량 큰 안목이 아니면 창졸간에 변경하기 어려울 터이니 구구한 詩語를 가지고 앞서 보일 정조를 잡을 수는 없으리라(6월18일).

(나) 文才가 有餘한 놈 往往 잇사오나
詩律은 慘酷하여 製述할 줄 모르더이다(287쪽)

...

제 나라 貴家 婦女 결집에 다닐 적에
바지 아니 입었기에 서서 오줌 누게 되면
제 隨從 그 뒤에서 明絢 手巾 가졌다가
달라 하면 내어주니 들으매 駭然하다
제 뉘이 죽게 되면 兄嫂를 계집삼아
메리고 살게 되면 착타 하고 기리지만
제 아운 길렀다고 弟嫂는 못 한다네
禮法이 전혀 없어 禽獸와 一般이다(179쪽)

II-4.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작가의 표현 태도를 살펴 보면, 조엄은 그가 체험한 대상들에 대해 개별적 특성의 가치를 중시한 까

답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김인점은 사행에서 그가 체험한 대상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비판을 가하기는 하지 않으나 세밀한 묘사나 논증적 설명보다는 풍류적 열거에 치중하고 있다.

(가) 대마도는 지방이 동서가 3백 리, 남북이 80리이며, 8郡 82浦로 나누었는데, 토지가 척박하고 생산되는 곡물이 매우 적어, 주민들의 생활은 오로지 고기잡이로 해나가니, 만일 우리 나라의 공미와 공목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일찍이 동래부에 있을 때 해마다 왜에게 주는 재산을 상고하여 계산해 보니, …대개,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때에 일본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萬曆 이전은 宗氏가 대대로 도주이었는데, 풍신수길 때에 와서 종성장을 폐하고 평의지를 세워 도주로 삼았으나, 지금도 종 대마수라고 칭하는 것은 도민들이 옛날의 태수의 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까닭이다(10월28일).

(나) 浦邊의 倭女들이 우리 배 바라보고
 通事에게 말을 배워 朝鮮 사람 부르거늘
 格卑 한 놈 對答하되 어이하여 부르나니
 오늘밤 내 집에 와 날과 한데 자고 가소
 格卑이 마다하니 倭女가 웃고 하되
 못생겼다 못생겼다 짐승이라 하리로다
 一船의 사람들이 一時에 大笑하고
 以後는 그놈더러 穢성이라 일컬으니
 열없고 부끄러워 할말없어 하는구나
 날마다 언덕에서 倭女들 모여와서
 짓 내어 가리키며 고개 조아 오라 하며
 불기 내어 두드리며 손 저어 講도 하고
 옷 들고 아래 뵈며 부르기도 하는구나
 廉恥가 전혀 없고 風俗도 淫亂하다(135쪽)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표현의 문제는 바로 작가가 인생이나 세계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Ⅲ. 작가의 세계관적 기반

문학 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동일한 소재일지라도 전

혀 다른 형상의 패턴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기법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물로서의 작품이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태도에 따라서 작품의 표현 형식이 좌우되고, 이 달라진 표현 형식은 독자에게 전혀 다른 사색과 감동을 유발한다.

Ⅲ-1. 고구마 종자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제주도에 재배시킨 趙巖(1719~1777)은 본관이 豐壤으로 1752년(영조 28)에 文科庭試에 급제한 후 正言·修撰·持平·校理·東萊府使·慶尙監司·副提學을 거쳐 癸未 通信使 正使·工曹判書·同知成均館事·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특히 그가 동래부사로 있을 때 對馬島와의 외교적인 문제들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후일 통신사의 정사로 임명되는 등 知日派로 인정을 받았다.⁷⁾ 477명을 통솔하여 풍속과 제도가 다른 외국에서의 경험과 전문을 상세하게 일기체로 엮어 남겨 놓은 <해사일기>에서 우리는 그가 문장에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 일행이 江戶 방문을 마치고 回程에 올라 大阪에 머물던 甲申年 4월 7일 새벽에 都訓導 崔天宗이 對馬島의 倭通事 鈴木傳藏에게 피살된 사건은 한때 국교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정사 조엄은 일행과 함께 大阪城에 28일 동안 머무르면서 주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말쑥없이 처리하면서, 끝내 범인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고서야 다시 회정길에 올랐다. 이는 조엄이 일본의 사정에 밝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對日問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日本通의 學者요 官僚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조엄은 廣狹長短의 尺數가 정확할뿐 아니라 중국 및 서구 여러 나라들과의 통상으로 농업·광업·방직 및 조선술 등에 상당한 과학기술을 축적하여 근대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실용적 선진문물의 개별적 가치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수용·도입하고자하는 주체적 의지를 보인다.⁸⁾ 이는 조엄이 이전의 통신사들처럼 고루한 화이론이나 명분·관념론적 승례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경험론

7) 김동주, 「해사일기 해제」, 『국역해행총재』Ⅶ(민족문화추진회, 1975), 11쪽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이동찬, 「앞의 논문」, 137~145쪽 참조할 것.

자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엄의 이러한 사고의 기저는 ‘人物性同論’에 있다.⁹⁾ 실지로 계미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올 무렵 국내에 實學이 발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암그룹과 가까이 어울렸던 元重擧와 成大中에 의해 사행의 경험 및 정보가 실학과 지식인에게 전파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연암학파는 주지하는 바 人物性同論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利用厚生을 위한 ‘經濟之學’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여 생산기술적 측면과 상업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발전 모델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¹⁰⁾

Ⅲ-2. <일동장유가>의 작자 金仁謙(1707~1772)은 金相漈의 玄孫이며 壯洞大臣 金昌集의 五子姪로서, 영조 29년(1754) 47세의 나이로 뒤늦게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57세 때 계미 통신사행의 三房書記로 발탁되기 전까지는 公州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던 進士였다.¹¹⁾ 그리고 일본을 다녀온 후 砥平縣監을 지낸 것이 관직생활의 전부였다.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그의 면모를 보면, 자신의 文章이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하는¹²⁾ 등 선비 기질을 도처에 드러내고 있다. 그의 선비 기질이

9) 저들이 지껄이는 언어는 그 한 가지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와 남자나 여자가 급하게 웃는 소리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 그 다 같이 타고난 天性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語音이 다른 方音에는 상관 없이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로 미루어 보면, 倫常을 지키는 천성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교양이 타당함을 잃어 華夷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능히 윤리와 綱常으로써 가르키고, 禮와 義로써 인도한다면, 또한 풍기를 변동시키고 세속을 바꾸며 夷를 변화하고 華로 善導하여 그 천성의 타고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울음소리와 웃는 소리가 한 하늘 아래 태어나 동일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10월10일)

10) 朴齊家, 『北學議』 「外編」 <通江南浙江商舶議>

11) 進士 臣 金仁謙은 文正公 玄孫으로/천 일곱 먹였삼고 公州서 사나이다/어저 네 그러하면 壯洞大臣 몇 寸인가/故 相臣 忠憲公의 五子姪이 되나이다(13쪽)

12) 玉堂 衍吏에게 箒鬚을 겨우 얻어/風雨처럼 지어 내어 번개같이 급히 쓸 제/이 무슨 구경이라 關內的 下人들이/다 주워 모여와서 圍承旨가/내 글을 먼저 받아 바빠 하려 廣達門 들이달아/詩草를 드리오니 入侍한 柳承旨가/내 글을 먼저 받아 소리 높여 여쭙오매/한句 읽고 두句 읽고 세句 네句 다 읽으니/龍顏이 大悅 하사 弊節嘆賞하오사대/들께 句 셋째 句는 제 뜻을 잘 새겼고/제 말로 하였으니 말째 句 더욱 좋다(15쪽)

란 中華文化의 본류인 明의 멸망으로 오랑캐의 압제 속에서도 중화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小中華 朝鮮뿐이라고 생각하여 淸과 日本을 야만시하는 것이다.¹³⁾ 즉 우리 朝鮮民은 禽獸와 같은 倭나 오랑캐와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월등한 문화적·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人과 物에는 각각의 性이 있다고 하여 그 동질성을 부인하고 人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人物性異論’의 이념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18세기의 心性論의 朱子學風에 근거한 人物性異論의 학풍은 향촌에 거주하면서 修身하는 선비들의 자존적 처세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김인겸 역시 上國과 下國, 班常의 구별이 엄존하는 중세적 기준질서가 회복·유지되기를 바라고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鄉村知識人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¹⁵⁾ 결국, 일본을 야만인으로 규정한 그의 선입관적 판단은 문물제도 등에서 근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에 있어 그것이 역사·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만 주관적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피상적 구경꾼으로의 자세로 남아있게 한 것이었다.

IV. 표현 매체의 선택과 구성 방식

텍스트를 메시지의 형태라고 한다면 언술(discourse)은 언어 참여의 행위이며 작가의 태도가 부여되는 언어 행위이다. 따라서 언술은 목소리로

-
- 13) 예를 들어 김인겸은 倭巢 사는 곳에 이르러 울분을 금치 못하고 “개 돌 같은 비린 類를 다 몰속 掃蕩하고/四千里 六十州를 朝鮮 땅 만들어서/王化에 沐浴 감겨 禮儀國 만들고자”(185쪽)라고 서술하는 등 <일동장유가> 전반에 걸쳐 ‘倭·穢·禽獸’ 등의 卑稱을 무려 50여 회 이상 반복 표현하고 있다.
- 14) 이는 壬丙兩亂 이후 당시 조선 사회가 당면했던 倭 日本과 오랑캐 淸의 현실적 굴복과 문화적 우월감의 괴리에서 오는 主體의 危機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유봉학, 『연암일파 복학사상 연구』(일지사, 1995), 79~100쪽 참조].
- 15) 그 단적인 예로는, 부산에서 書記 元重舉와 船將 金九榮과의 다툼에 끼여들어 正使에게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 사행길에서 書記는 程子冠과 臥龍冠을 쓸 수 없다고 상진한 裨將의 말에 강력 반발한 일이나 崔天宗 殺害事件을 처리함에 있어 譯官 崔鶴齡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들리든지, 비전의 선택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감각을 통해 감지되든지 간에 음성이나 문자라는 표현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학 텍스트는 문자라는 표현 매체를 빌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문자를 읽음으로써 내용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텍스트에 채택된 문자 표현 매체는 작가나 독자 계층, 글의 종류, 장르의 성격 등을 결정짓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는 각각 漢文體와 國文體라는 다른 문자를 채택하고 있다. 조엄이 한문체를 채택하여 <해사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다음의 기록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일기는 애초에 자세히 적으려 하였으나, 때로 「息波錄」과 「槎上記」를 보았더니, 전인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거듭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병들고 게을러서 빠뜨린 것이 더러 많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온 이래로는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였는데, 일기도에 오래 체류할 적에 시간 보내기 어려워서 劉澗象에게 붓을 쥐이고 나는 불러 겨우 날짜는 연결할 수 있었으나, 날짜가 오래되어 너무 소략하여 다만 紀行의 경계를 적을 뿐, 애초부터 후인의 고증을 위한 것은 아니다(11월24일).

이를 통해 <해사일기>가 저술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는 17세기 이래 통신사와 수행원들이 일기 형식으로 여행기를 남겼던 문학적 관습의 계승이었으며, 둘째로는 정사라는 공식적 지휘 통솔자로서 사행의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공식적 통용 문서로서의 성격이다. 이로 볼 때 <해사일기>는 애초부터 의도된 저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인겸은 “子孫을 뵈자 하고(298쪽)” 국문의 표현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국문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된다. 첫째,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 한문문체가 가지는 이상의 감각적인 지각영상까지도 신빙성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 행위와 문자 행위의 일치로 작가가 기대했던 정보의 기능까지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사적 감정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자 문화권 내의 양반 사대부와 규방 아녀자를 포함한 鄉村의 상하층민 모두를 독자계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 매체의 선택은 작가가 속해 있는 사회적 가정적인 관습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선택된 문자는 표현의 양상은 물론 구성 방식까지도 달라진다.

(가) 肥州守가 串炮 1개를 보내왔으니, 이는 곧 乾鰓인데, 우리 나라의 花鰓과 같은 것이었다. 일찍이 들건대, 연해에서 받은 杉重을 혹 差倭에게 대신 주는 일도 있다 하므로, 護行正官 平如敏에게 내어 주었더니, '우리 조부가 한 번은 뱃길을 가다가 배에 물이 새어들어 와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뻔하였는데, 홀연히 생전복이 새는 구멍에 붙어서 살아나게 되었으므로, 그의 자손되는 자는 이 때문에 전복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11월23일).

(나) 肥州太守 보낸 것이 花鰓 模樣 같은 것을
 櫃에 가득 넣어다가 使上께 드리오니
 同行들 나눠 주고 倭奉行 덜어 주니
 하나도 아니 받고 도로와 드리거늘
 使相이 물으시니 倭奉行 대답하되
 제 아버 샅았을 제 배 속에서 바람 만나
 탄 배가 굽이 나서 물이 팔팔 들어오되
 락을 計巧 전혀 없어 아주 죽게 되었더니
 어디서 큰 生鰓이 그 굽에 우뚝히니
 물이 전혀 아니 들어 因하여 살아나니
 子孫에게 遺囑하여 生鰓 먹지 말라 하매
 恩惠는 感激하나 못 먹고 드리나이다
 들으매 奇異하다(133쪽)

위 인용문은 壹岐島에서 肥州太守가 生鰓을 사신 일행에게 보내온 것을 倭의 護行正官에게 正使가 주었으나 그는 祖父(父親)의 유언 때문에 사양하였다는 내용을 두 자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두 인용문이 확연하게 다른 인상을 갖게 하는 지배소는 울적 자질의 유무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동장유가>에서는, 한 행의 구조가 '조건 또는 원인(전반부)-행위 또는 결과(후반부)'의 짜임을 가짐으로써 병렬의 균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한국시가의 전통 자수율인 3~4음절 위주의 유동적 음수율을 보이며 等長인 음보가 2음보씩 연쇄 구조¹⁶⁾를 보이는

16)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삼영사, 1976), 41쪽 참조.

시조나 다른 여타의 가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동장유가>의 인용한 부분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줄로 된 시행이 ‘-니’ 또는 ‘-되’ 등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과, 두 줄의 의미를 형성하는 통사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또다른 의미의 병렬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니’, ‘-되’ 등으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의 지속은 가사의 전체적인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랫말이 길어지는 장형화의 원리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리듬과 운율, 병렬과 장형화의 미적 표현은 시가를 시가답게 하는 장르 특성에 해당하며, 이 달라진 표현 형식은 독자에게 전혀 다른 뉘앙스와 감동을 주게 된다.

V. 장르 선택과 기대 효과의 확충

독자는 공허한 마음으로 텍스트에 접근하여 그것에서 추출된 정보나 의미를 수용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그 자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의해서 해석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르 선택은 작가의 독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이번 길에 붓가는 대로 일기 쓰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전 사람들이 이미 기록한 말을 다 빼어버리자니 실지를 기록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과 그 어리석은 소견이 미치는 대로 취하여 실었으나, 이런 등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병들어 게으르고 보니, 이루어진 뒤에 불 만한 것이 없을까 두렵다(10월 6일)…뒤에 이 글을 보는 자 어찌 ‘오랑캐 땅이라도 갈 수 있다’는 공부자의 가르침에 힘쓰지 않겠는가(7월8일).

위 인용문을 통해 조엄이 기존의 문학 관습을 그대로 채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몇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후 일본에 가는 자들에게 객관적인 눈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내용을 자료 보존의 목적에서 사실적으로 기록한 의도적 저술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문체의 긴 문장으로 설명·서사·묘사의 기술 방식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부분적으로 소박한 역사적 논증을 곁들임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조리있고 정연하게 서술하여 강한 설득력을 유지하려한 저술이라는 점이다.

셋째, 집단의 공동체적 정서를 환기하기보다는 개별 사물이나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작가의 내면적 자기 성찰에 초점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독자를 수렴하기 보다는 특정 독자만을 대상으로 한 닫힌 구조의 여행 체험담임을 보여준다.

한편, 작가 김인겸이 歌辭 <日東壯遊歌>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 서술한 대목에서는 그가 기존의 문학 관습을 탈피하고 가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몇가지 이유와 그로 인해 획득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水陸 六千里를 한 해 만에 돌아오니
 나라히 昇光하고 家屬도 無恙하니
 이에서 기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고
 千辛萬苦하고 十生九死하여
 壯하고 異常하고 무섭고 놀라우며
 부끄럽고 痛恨하며 우습고도 多幸하며
 미우며 애처롭고 奸邪하고 사나울고
 快하고 기쁜 일과 支離하고 難堪한 일
 갖가지로 갖춰 겪어 周年 만에 돌아온 일
 子孫을 俾자 하고 歌辭를 지어 내니
 萬의 하나 記錄하되 支離하고 荒雜하니
 보시는 이 웃지 말고 破寂이나 하오소서(289쪽)

첫째, <일동장유가>는 사행시 체험을 장형화의 원리 속에서 자유로이 엮어 내는 열린 구조의 여행 체험담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시조, 가사, 잡가 등에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열체의 병렬을 통해 얻어지는 구조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문화 시혜국으로서 갖는 민족적 우월감과 같은 집단 공동체적 정서에 독자를 동참케 하는 개방성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계열체의 병렬에 의한 시가의 장형화를 통해 다채로운 언어구사와 사실적 표현, 해학적 요소와 결합된 미적 기능의 강화 및 흥미 지속, 새로

운 지식의 전달·홍보를 통한 교훈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셋째, 대화체와 판소리 사설체를 수용하는 등 풍부한 묘사와 확장적 진술을 통해 정제된 언어 표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정서를 적절히 수렴·확산시킴으로써 작자의 사상과 감정 표현의 세련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었다.

넷째, 독자에게 리듬감과 속도감을 제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루한 느낌을 없애면서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상과 같이 김인겸은 우리 시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율격장치에다 다양한 체험들을 연쇄적으로 엮어내는 문학적 장치를 이용하여 상·하, 남·녀, 노·소의 광범위한 향유층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VI. 남은 문제

본고는 英祖 39년(1763) 癸未 通信使行을 체험한 趙儼과 金仁謙이 각각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라는 전혀 다른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텍스트 내용, 작가의 세계관적 기반, 전문 자료의 수용과 제시 방식 등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선결되었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 한다.

첫째, 기왕의 연구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일동장유가>의 창작 과정과 그 시기 문제이다. 즉, 통신사행 후 일기 형식의 한문체 전문록을 남겼던 당시의 문학적 관습이나 성대중의 아들 成海應이 가려뽑은 것으로 보이는 <退石金仁謙東槎錄抄>가 『靑丘稗說』에 실려있는 점으로 보아 漢詩文에 뛰어난 김인겸이 사행중 일기체 備忘錄을 작성해 귀국한 후 <東槎錄>(失傳)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子孫에게 뵈고자” 다시 장편의 국문가사인 <일동장유가>를 엮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창작 과정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창작 시기로 알려진

1764년은 물론 앞에서 보인 필자의 논의 또한 어느 정도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肅宗 20년(1694) 三節年貢行의 正使 柳命天의 <燕行日記>와 그때 어떤 使行者가 쓴 <燕行別曲>, 그리고 純祖 28년(1828) 進賀兼謝恩使行 때 어떤 使行者가 쓴 <赴燕日記>와 金芝叟가 쓴 <戊子西行錄>의 상호 관련성 검토가 병행되었다더라면 본고는 보다 설득력을 갖지 않았을까 한다.